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송인곤 전무 취임식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지난 6월 11일 송인곤 전무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송인곤 전무는 지난 1975년부터 27년 동안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축산과 행정분야에서 근무하였으며, 2002년 낙농진흥회 상무직을 역임한 바 있다. 이어 2004년 6월 방역본부 관리국장으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행정체계를 정립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는데 공헌했다.

한편, 방역본부는 농식품부 직제개편에 따라 조직을 4개팀에서 기획예산팀, 경영지원팀, 홍보교육팀, 방역사업팀, 검역팀, 소비안전팀으로 확대했다.

## 대한수의사회 노천섭 사무총장 취임

대한수의사회(회장 정영채)는 지난 11일부로 노천섭 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무이사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노천섭 사무총장은 1954년생으로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수의학 석사학위, 연세대학교관리과학대학원 고급정보화정책과정을 수료했다. 주요경력으로는 ROTC 15기

생으로 1977년 사단 방역담당관을 거쳐 식품검사대장, 국군의학연구소장, 국방부 방역담당, 1군사령부 의무과장, 육군수의병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노총장은 30여년이 넘는 시간을 전염병예방 및 동물진료, 식품위생분야에 헌신해 왔으며, 적극적인 사업추진력을 겸비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어 대한 수의사회의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 노천섭 사무총장

## 농협사료 이제영 팀장, 본사로 발령

농협사료 이제영 팀장이 경주공장에서 본사 양계 PM팀으로 자리를 바꿔 앉았다.

이제영 팀장은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양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월 농협사료 경주공장으로 발령 났으며 이후 3개월여만인 지난 5월 중순경 서울 소재 농협사료 본사로 재차 발령받게 됐다.



▲ 이제영 팀장

## 축산경제신문사 양계분야 의무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축산경제신문사(대표 김기윤)는 지난 6월 22일 축



산회관 회의실에서 '양계분야 의무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준동 양계협회장, 오정길 한국양계농협 조합장, 김영만 축산경영과 사무관, 김삼수 양계·특수가축팀장, 김종준 산란계자조금사무국 과장, 이준영 축산경제신문사 상무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육계의 경우 일부 계열업체를 제외하고 자조금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농가 홍보를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펼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자조금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다. 또한 산란계의 경우는 도계장들의 협조가 미진하고 복잡한 유통망으로 인해 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모든 농가들이 자조금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자조금 거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산란계, 육계 모두 선 시행 후 보완으로 가자는데 원칙적으로 동감을 하고 농가는 물론 도계장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 체리부로

### 체리부로 자조금 거출 동참

체리부로가 자조금 거출에 동참할 뜻을 내비춰 자조금 거출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체리부로 회장은 "농가와 업체가 원원하는 자조

금 사업이 되어 한다. 농가 부담금액인 5원 중 4원(80%)을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자조금 거출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농가들에게 홍보 강화를 통해 거출을 독려해

야 한다. 자조금은 육계 산업을 살리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김 회장은 체리부로가 자조금 형태의 사육비를 올려 주더라도 농가들이 자조금을 거출키로 했기 때문에 1원(20%)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 김인식회장

## (사)한국토종닭협회

### 토종닭 인증제 계약 체결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지난 6월 5일 협회사무실에서 (주)더 매니저먼트 앤 컴퍼니(대표 노시천)와 토종닭인증제에 관한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김연수 회장은 '현재 백세미가 토종닭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정상적으로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설명하고 토종닭 인증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농가의 소득향상과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우수한 토종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자체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 내용은 공동 브랜드 Naming 작업, 공동브랜드 B.I 작업, 자체인증제 개발 작업에 착수하게 되며 컨설팅 기간은 6월 5일부터 금년 말까지이다.

## 사옥이전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가 사옥을 이전하고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변경했다.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48-14 2층
- 전화 : 02-3437-9906
- 팩스 : 02-3437-9907

## KISTOCK 2009 추진위원회

### 2009 대전국제축산박람회 부스유치 100% 달성

오는 9월 9일 대전 KOTREX와 DCC에서 개최될 2009 대전국제축산박람회 참가업체 모집이 6월 5일자로 100% 완료됐다. 당초 경기침체로 인해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를 뒤로하고, 이번 박람회에는 166개 업체, 691부스가 유치됐다.

KISTOCK 2009는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치러질 예정이며, 축산 기자재, 동물약품, 사료 및 첨가제업체 등 축산업계의 내로라하는 업체들이 참가해 각종 전시행사와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 블로그 기자단, 축산아이디어 공모전 등 사전이벤트 실시

KISTOCK2009 추진위원회에서는 박람회를 더욱 빛내 줄 블로그 기자단을 오는 6월 19일(금)부터 30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축산업에 관심이 많으며 글쓰기, 사진, 동영상 촬영 등에 남다른 소질이 있거나 블로그 운영 등 적극적인 온라인 활동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블로그 기자단은 KISTOCK2009 공식 블로그 및 각 포털사이트에서 KISTOCK2009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KISTOCK2009 출입증은 물론,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박람회 후에는 감사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서류 접수는 info@kistock.kr으로 이메일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KISTOCK2009홈페이지(<http://www.kistock.kr>)나 kistock2009 준비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02-6000-7729)

## 가금질병연구회

### 춘계학술세미나 개최

가금질병연구회(회장 권준헌)는 지난 10일 국립수위과학검역원 대강당에서 '2009년 가금질병연구회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제 1주제 '주요 육계품종의 사양관리'와 제 2주제 '백신과 환경 그리고 질병예방'이라는 주제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는데 육계 주요품종에 대한 소개는 국내에서 주요품종으로 사육되고 있는 로스, 에이비안, 아바에이커의 사양관리를 홍영호(삼화육종) 이사, 권정택(하림) 상무, 구본정(한국원종) 차장이 일련별 영양관리부터 환기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발표, 참석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백신과 환경 그리고 질병예방을 주제로 강민수 박사(수의과학검역원)가 '닭 Salmonella Enteritidis 방제를 위한 선진 모니터링 시스템'을, 권정택 상무(하림)가 '질병 근절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 방안'을 정찬이 차장(인터베토코리아)이 '닭전염성빈혈증과 면역억제에 의한 생산성 저하'를 송찬선

교수(건국대)가 '감보로병과 면역억제 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강민수 박사는 닭관련 축산식품을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살모넬라(SE) 방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장내 살모넬라 방제 프로그램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함을 지적하였으며, 권정택 상무는 종계장의 시설개선 지원과 육계농가의 상대평가제 시행으로 양계업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시설개선과 제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 밖에 백신을 통한 닭전염성빈혈의 방제 효과와 아직도 피해를 주고 있는 감보로병의 예방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었다.

## (사)한국농업CEO연합회

### 농업법인 CEO·실무자 위한 전문교육 수강생 모집

농업법인을 위한 농산업 전문교육이 실시된다.

농업법인 대표단체인 (사)한국농업CEO연합회(회장 이원규)는 오는 7월부터 2009 농산업CEO대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법인에서는 그동안 농업이라는 특성상 전문교육시설 부재로 인하여 우수한 인력확보·육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한국농업CEO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농업법인을 위한 전문교육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시킴에 따라 2006년부터 양질의 전문교육과정을 국고보조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진행되는 세부 교육과정을 보면 농업법인 입문, 특허 및 상표 실무, 무역실무, 투자기법, Advanced MBA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법

인에 관련된 농기업 CEO부터 임직원까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접수신청은 아래 표와 같이 6월15일을 시작으로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연합회 홈페이지(www.aceo.or.kr) 또는 02-6300-8393(담당 기영훈 대리)로 문의하면 된다.

과정명	기수	신청일자	수강일자	차부담
농업법인 입문	1기	6월15일~7월3일	7월7일~10일(3박4일)	25만원
	2기	8월3일~9월11일	9월15일~18일(3박4일)	
특허 및 상표 실무	1기	6월15일~7월17일	7월21일~23일(2박3일)	20만원
무역 실무	1기	6월15일~10월10일	9월8일~11일(2박3일)	25만원
	2기		10월13일~16일(2박3일)	
투자기법 (실무자)	1기	6월15일~8월31일	9월3일~4일(2박3일)	40만원
			9월9일~11일(2박3일) 9월18일(1일)	
투자기법 (CEO)	2기	6월15일~10월1일	10월7일~9일(2박3일)	70만원
			10월14일~16일(2박3일) 10월23일(1일)	
Advanced MBA	2기	6월15일~8월7일	8월13일~15일(2박3일)	70만원
			8월27일~29일(2박3일) 9월3일~5일(2박3일) 인터넷 강의	

※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

※ 모든 교육과정 수료 후 수료증 증정함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OIE 인정 브루셀라병 국제표준실험실 '쾌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77차 OIE 총회('09.5.24~29)에서 우리원 브루셀라병 실험실이 OIE 표준실험실(OIE Reference Laboratory)로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OIE 표준실험실은 해당 질병(브루셀라병)에 대해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의조직이 탄생한 이래 100년 만에 이루어낸 쾌거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처음이며, OIE



173개 회원국 중에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7개국만이 이 인정을 받았다.

이울러 검역원은 이번 브루셀라병에 대한 표준실험실 인정을 계기로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뉴캐슬병, 광견병, 항생제내성균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축산식품 HACCP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축산식품의 HACCP 저변확대 및 HACCP 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해 6월 11일 (목) 검역원 대강당에서 학계, 관련협회, 축산물작업장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식품 HACCP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축산식품 HACCP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축사육단계에서 식육판매단계까지 “farm to table” 전 과정에 HACCP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 HACCP 연구회(회장 : 홍종해 교수)와 공동으로 학계, 산업계, 관계공무원 등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HACCP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검역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업계 및 관련 공무원 등 관계자에게 미국의 HACCP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업계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향후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축산식품 HACCP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축산물등급판정소**

**쇠고기 이력추적제 본 사업실시에 따른 가두 캠페인 실시**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6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범국민적 실천공감대를 조성하고 식육판매업소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지난 6월 16일 서울시청역 주변에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서울특별시, 전국한우협회,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기업조합 등 100여명은 서울 시청역을 시작으로, 축산물유통의 밀집지역인 마장동축산물시장 등을 돌며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필요성과 올바른 표시방법 등을 알렸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정착되면 거래되는 모든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돼 구입한 쇠고기의 사육지, 소의 종류, 등급 등을 알 수 있어 둔갑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